

의궤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김 세 린**

목 차

- I. 머리말
- II. 상존호도감의 유형과 철제입사자물쇠 제작 전거
- III.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숙종~영조 연간 상존호도감에서 제작한 철제입사자물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숙종~영조 연간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존호의례가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존호를 올릴 때는 여러 의물들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는데 존호를 받을 대상에게 올리기 위해 인장(印章)인 금보(金寶) 또는 옥보(玉寶)를 조성했다. 철제입사자물쇠는 이를 담는 함의 구성 의물 중 하나로 제작되었다. 의례에 들어가는 자물쇠는 다른 기물에 비해 소형이었고, 규모가 작은 제작 공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규범에 맞춰 정교하게 제작하기 위해 자물쇠를 제작하는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0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의궤와 공예품》(2020년 11월 23)에서 발표한 글의 연구 대상범위를 확대 수정, 보완한 것이다.

** 金世麟,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serine0422@hanmail.net
투고일: 2021. 4. 30. 심사완료일: 2021. 5. 30. 게재확정일: 2021. 6. 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7>

전문 장인인 쇠약장, 시장 등을 투입해 형태를 제작했고, 입사장이 문양시문을 담당하게 해 철저하게 제작을 분업화했다. 한편으로는 1770년 이후 보록과 주록, 호갑에 들어가는 자물쇠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보시장이 등장해 도감 내 쇠약장과 시장의 분화가 확인된다. 아울러 왕실 의례에 사용하는 자물쇠였기에 재료도 국내산 매우 양질의 순도 높은 금속재료를 활용해 제작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현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고, 현전하는 유물 중에는 추후 보수해 넣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당 의궤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자물쇠가 많았다. 이는 연구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선시대 금속공예의 양상과 기술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왕실용 자물쇠에 대한 보다 면밀한 유물 조사와 문헌기록 수집 및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핵심어 | 철제입사자물쇠, 입사기법, 입사장, 존호, 시호, 권설도감

I. 머리말

상존호(上尊號)도감은 존호(尊號)나 시호(諡號)를 올리는 의례를 위해 설치되었다. 상존호에는 존승례와 존호례, 상호례 등이 포함된다. 시행되는 행사의 세부 성격에 따라 존승도감(尊崇都監), 존호도감(尊號都監), 상호도감(上號都監), 가상도감(加上都監) 등의 도감이 설치되었고, 의궤에 제반 내용이 기록되었다. 왕실에서 상존호도감을 설치해 존호를 올리는 대상은 왕, 왕비, 대비, 사망한 선왕과 선왕비, 추존 및 복위된 왕과 왕비, 후궁 중 왕의 모친 등이 있었다.

숙종~영조 재위 연간(1674-1776)에는 상존호의례가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우선 대비가 이 시기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신왕의 즉위나 환갑 등에 맞춰 존호를 올렸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 왕권을 세우고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존호, 시호, 복위선시례(復位宣諡禮) 등 여러 유형의 상존호의례가 시행되었다.

존호를 올릴 때는 여러 의물들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존호를 받을

대상에게 올리기 위해 인장(印章)인 금보(金寶) 또는 옥보(玉寶)이다. 아울러 이 인장을 담아 보관하는 내함과 외함이 함께 제작되었다. 인장을 직접 넣는 함인 금속제 보통(寶筒), 인주(印朱)를 담은 주통(朱筒), 보통과 주통을 담은 외함인 보록(寶鑰)과 주록(朱鑰), 보록과 주록을 담은 두 함이 넓은 가죽끈인 담편(擔鞭)으로 연결, 구성된 호갑(護匣)이 그것이다. 그리고 함에 담긴 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보록과 주록, 호갑에는 금속제 자물쇠를 만들어 채웠다. 자물쇠는 금속 중 물성이 단단한 편에 속하는 철이나 황동과 같은 동합금재로 제작되었고, 자물쇠 표면에는 도금(鍍金)을 하거나 입사(入絲), 남염(纈染)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 문양이나 색채 장식을 더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보록용 철제입사자물쇠는 이 중 철로 제작해 인장을 보관하는 외함을 잠그기 위해 사용한 자물쇠이다.

보록용 자물쇠는 2000년대 후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련 유물을 공개하고 전시를 진행하면서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례 자료의 DB가 편리하게 구축되고 외규장각 의례의 반환 및 공개에 따른 관련 문헌 자료의 접근성이 좋아진 최근에서야 주목받아 연구가 시작되었다.¹⁾ 그래도 왕실공예품에 대한 장경희와 김삼대자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²⁾ 자물쇠가 사용되었던 인장, 보록, 옥책함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자물쇠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³⁾ 아울러 의례 기록에서

-
- 1) 오승식, 「전통자물쇠 제작기법 연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민정, 「고려시대 자물쇠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등이 있다.
 - 2) 김삼대자는 「이조시대 축등기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을 시작으로 한국의 목가구 및 조선시대 왕실용 목공예품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경희는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를 시작으로 왕실공예품의 제작기술, 예제, 장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왕실공예품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김미라, 「조선후기 옥책 내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혜원, 「조선말기 왕실 의례용 목가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허수민, 「조선

자물쇠에 대한 재료, 도구, 기법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을 추출해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유물은 자물쇠의 특성상 결실이 쉽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손실된 것도 많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외에는 확인하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중에도 추후 새로 제작되었거나 그 외의 상황으로 인해 의궤 기록에 나타나는 자물쇠와 현전하는 유물이 매칭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직 관련 연구 성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궤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편인 숙종~영조대 상존호도감에서 제작된 철제입사자물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 시문 기술 및 사용된 금속재료의 품질과 용도, 제작체제 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전하는 유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궤를 통해 조선시대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시문기술을 구체적으로 추론해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Ⅱ. 상존호도감의 유형과 철제입사자물쇠 제작 전거

1. 숙종~영조 연간 상존호도감의 유형

조선시대 상존호도감(上尊號都監)의 설치 유형과 철제입사자물쇠의 구체적인 제작 사례는 현재 전해지는 17세기부터의 의궤를 통해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도감은 살아있는 왕이나 왕비, 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 또는 이미 승하한 선왕과 선왕비에게 시호를 올리는 추상(追上), 시호를 더하는 가상(加上)도감을 모두 포괄한다.⁴⁾ 올리는 시호나 휘호는 옥책(玉冊), 옥보(玉寶), 금보(金寶)에 새겨 올리는데 이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도

왕실 보록의 제작과 율삭형 연구」, 『무형유산』 7, 2019, 195~220쪽 등이 있다.

4) 3년상 후 종묘에 위패를 올리는 부묘시에는 필수였으며, 그 외에도 필요시 시호를 더하기도 했다.

감이 상호도감(上號都監)이다.⁵⁾ 따라서 상호도감에서 제작되는 공예품은 기본적인 예제를 바탕으로 하여 시호, 존호례의 진행 목적과 해당되는 인물의 지위, 성격과도 연결된다.

숙종~영조 재위 연간인 1674-1776년에 시행된 시호, 존호례는 총 22건이다.⁶⁾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수로, 조선시대 존호 의례의 유형 대부분이 시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중 인장함용 철제입사자물쇠를 제작한 의례는 총 12건으로 50%를 약간 넘는다. 의례를 위해 상호도감에서 인장함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철제입사자물쇠의 유형에 따른 용도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시기 시행된 존호를 올리는 의례의 유형은 총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생존한 선왕의 왕비에게 올리는 존승례이다. 왕이 즉위하면 선왕비는 대비가 되고 선왕대부터 있었던 대비는 대왕대비에 오르고 존호를 받는다. 숙종, 경종, 영조 즉위 당시 [표 1]과 같이 생존 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있었다.

5) 김중수, 「존호, 존승, 상호도감의례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집』 12, 2005, 162쪽.
6) 숙종 연간(1674-1720)에 총 6건(장렬왕후, 명성왕후 존승[1677], 정종, 정안왕후 시호[1681], 태조, 신의왕후, 태종, 신덕왕후 가상시호[1681], 장렬왕후 존승[1686], 단종, 정순왕후 복위시호[1698],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존승[1713], 소현세자빈 민회빈 복위시호[1718])에 대한 상호도감이 설치되었다. 경종 연간(1720-1724)에는 1건(인원왕후 존승[1722])에 대한 상호도감이 설치되었다. 영조 연간(1724-1776)에는 총 14건(인원왕후, 선의왕후 존승[1724], 인원왕후 존승[1738], 중종비 단경왕후 복위시호[1739], 효종 가상시호[1740], 인원왕후 존승[1740], 인원왕후 존승[1751], 인원왕후 존승[1752], 영조 모친 숙빈 시호[1753],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가상시호[1753], 원종 모친 인빈 시호[1755], 인원왕후, 숙빈, 영조, 정성왕후 존승[1755], 숙빈 시호[1722], 현종, 명성왕후, 영조, 정성왕후, 정순왕후 가상시호[1772])에 대한 상호도감이 설치되었다.

[표 1] 숙종~영조 재위 연간 대비(大妃)

숙종 (재위기간: 1674-1720)	경종 (재위기간: 1720-1724)	영조 (재위기간: 1724-1776)
인조 비 장렬왕후 (1624-1688) 현종 비 명성왕후 (1642-1683)	숙종 비 인원왕후 (1687-1757)	숙종 비 인원왕후 (1687-1757) 경종 비 선의왕후 (1705-1730)

특히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와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는 장수를 하며 대비 및 대왕대비로 머문 기간이 길었다. 이에 숙종, 경종, 영조는 즉위 시 대비에게 존호를 올렸고 대비의 환갑이나 대비의 남편이자 선왕인 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등 기념할 만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존호를 올렸다. 그리하여 인원왕후의 경우 생전 숙종의 왕비, 경종 재위기의 대비, 영조 재위기의 대왕대비 자격으로 총 열 번의 존호를 받았으며, 1747년에는 환갑을 기념해 존승례를 받았고, 강성(康聖)이라는 존호를 받았다.⁷⁾

2유형은 통상적으로 시행한 현왕과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예도 지속되었다. 왕과 왕비의 덕과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재위기간이 짧은 경종은 생전 존호를 받지 못했으며, 숙종은 1713년 집권 40주년을 기념해서 이미 사망한 인경왕후(仁敬王后: 1661-1680),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 당시 왕비인 인원왕후와 함께 한 번, 영조는 4번의 존호를 받았다.⁸⁾

7) 현재 전해지는 인원왕후 생전 존승, 존호례 관련 의례는 다음과 같다.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13, 奎13267),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22, 奎13277),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1726, 奎13280),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39, 奎13283),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40, 奎13286),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47, 奎13288),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51, 奎13290),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2, 奎13292),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54, 奎13294),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6, 奎13269).

8) 숙종의 생전 존호 관련 의례는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13,

이 유형 중에는 대비의 존승례와 중의적인 성격을 띤 경우도 있다. 영조의 존호례는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1756년(영조32) 대왕대비인 인원왕후의 칠순을 겸해 대비와 왕, 왕비의 존호를 함께 올렸다. 이 때 인원왕후, 영조,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淑嬪崔氏: 1670-1718)에게 존호가 올라갔다. 이 때 금보 호갑에 사용하기 위한 철제입사자물쇠도 제작되었다.⁹⁾ 비슷한 사례로 1772년(영조48) 영조의 존호는 현종(顯宗: 1641-1674)과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의 신주를 종묘 세실에 봉안하고 시호를 더해 올리면서 영조의 즉위 50주년과 장수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받았다.¹⁰⁾

3유형은 이전에 재위한 선왕들에 대한 존호를 올린 것으로, 숙종과 영조 연간에 모두 시행되었다. 시호를 더해 올리는 가상시호가 대다수였다. 이 외에 1681년(숙종7) 당시 공정왕(恭靖王)이라고 불리던 2대 정종(定宗: 1357-1419)에게 묘호를 올리고, 왕비인 정안왕후(定安王后: 1355-1412)와 함께 시호를 더해 올렸다. 영조 연간에는 효종에게 시호를 더했다.

4유형은 이미 폐위되고 죽은 왕이나 왕비, 세자, 세자빈을 복위하고 시호를 올리는 예인 복위선사례(復位宣諡禮)이다. 숙종 연간에는 단종(端宗:

奎13267)가 있다. 영조의 생전 존호 관련 의례는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40, 奎13286),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儀軌』(1773, 奎13265),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2, 奎13292),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6, 奎13269)가 있다.

9) 영조시기 선왕과 영조의 존호를 같이 올릴 때, 직전왕인 경종이 아닌 부왕인 숙종과 사망한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 인현왕후, 생존해있는 인원왕후와 영조, 영조의 비인 정성왕후에 대한 존승례를 진행했다. 또는 여기에 자신의 생모인 화경숙빈 최씨를 포함하기도 했다.

10) 『英祖實錄』에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위패를 종묘 세실에 배치하고 존호 올리는 것을 결정하면서, 신하들의 주청에 의해 영조의 존호를 함께 올렸던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英祖實錄』卷119, 영조48년(1772) 10월 22일, “...王世孫進跪曰: “殿下加上尊號於崇陵, 慶溢宗祚, 小臣敢請上號於殿下, 以伸寸忱.” 上曰: “爲此後予當受之.” 王世孫進前伏曰: “不勝歡忭, 敢此呼嵩.” 仍呼千歲, 諸臣皆呼千歲者三.”

1441-1457)과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 소현세자의 세자빈 민희빈(愍懷嬪: 1611-1646), 영조 때에는 중종반정(1506) 당시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으나 신수근(愼守勤: 1450-1506)의 딸이자 연산군의 조카란 이유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1487-1557)에 대한 복위선시례가 시행되었다.

5유형은 후궁인 왕의 모친에게 시호나 존호를 올리는 예로 이는 영조 연간에만 시행되었다. 숙종은 조선시대 왕위계승에서 가장 우선시되었던 정비 소생의 장자 세습을 통해 보위에 오른 왕이었다. 확고한 정통성이 있었고, 이는 숙종의 환국정치를 뒷받침하는 강한 왕권의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 소생으로 태어난 영조는 정통성이 재위 내내 약점으로 작용했다. 사실 왕위에 오른 왕을 낳은 후궁에 대해 시호를 주고 여러 의전을 행한 것은 조선시대 통상적인 것 중 하나였다.¹¹⁾ 영조는 육상궁(毓祥宮)을 설치해 모친인 숙빈 최씨의 위패를 모셨으며, 이후 이곳에 왕을 낳은 일곱 명의 후궁의 위패가 모셔지면서 육상궁은 칠궁(七宮)이라 불리게 되었다.¹²⁾ 영조 연간 화경숙빈 최씨에 대한 존호례는 숙빈의 묘인 소령묘(昭寧墓)를 소령원(昭寧園)으로 승격시키고 시호를 올린 상시봉원례(1753)와 시호만을 올린 추상(1772), 숙종, 인경왕후, 영조, 정성왕후와 함께 시호를 올린 존호례(1756) 총 세 번 치러졌다.¹³⁾ 1755년(영조31)에는 비슷한 의례로 선조

11) 추존왕 원종의 모친이자 인조의 할머니였던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모친이었던 옥산부대빈 장씨, 영조의 아들이자 추존왕이었던 진종의 모친 정빈 이씨(온희, 정조2년), 정조의 부친인 장조(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순조의 모친인 수빈 박씨(휘경) 모두 시호를 받았다. 인빈 김씨는 영조대에 경혜라는 시호를 받았다.

12) 칠궁은 왕을 출산한 후궁의 위패가 모셔진 전각이 각각의 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빈 최씨의 궁은 설치때와 동일하게 육상궁으로, 원종의 모친 인빈 김씨는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모친 희빈 장씨는 대빈궁(大嬪宮), 진종의 모친 정빈 이씨는 연우궁(延祐宮), 장조의 모친 영빈 이씨는 선희궁(宣禧宮), 순조의 모친 수빈 박씨는 경우궁(景祐宮), 영친왕의 모친인 순헌황귀비 엄씨는 덕안궁(德安宮)에 각각 위패가 모셔져 있다.

13) 영조 연간 시행된 화경숙빈 최씨 존호 관련 의례는 다음과 같다. 『淑嬪上諡封園都監儀

의 후궁으로 추존왕 원종(元宗: 1580-1620)의 모친이자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 김씨(仁嬪金氏: 1555-1613)에게 경혜(敬惠)라는 시호를 올리고, 묘를 원으로 올려 순강원(順康園)이라 하고 원을 정비하는 상시봉원례가 시행되었다. 이는 영조가 모친인 화경숙빈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전의 유사한 인물들에 대한 시호 및 묘소 정비 의례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숙빈에 대한 예우가 과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후 후궁 소생인 진종, 장조, 순조의 모친에 대한 예제의 전범이 되었다.¹⁴⁾ 이 의례는 정1품 빈(嬪)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례였기에 세자, 세자빈과 동일한 의물이 올려졌다. 따라서 보(寶)가 아닌 인(印)의 위계로 제작되어 옥인(玉印), 은인(銀印)이 봉헌되었다. 아울러 숙빈, 인빈의 시호 봉원 의례 인장부속에는 철제입사자물쇠가 사용되지 않았다.¹⁵⁾

이 중 철제입사자물쇠는 왕과 왕비, 대비를 대상으로 시행된 유형인 1, 2, 3유형 의례에서 사용되었다. 유형5도 한 건이 있으나, 왕과 왕비 대비를 대상으로 한 존승례에 왕의 사친인 화경숙빈 최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2유형에 가까운 의례라 볼 수 있다. 금보(金寶)를 올린 의례에서는 호갑(護匣)용으로, 옥보(玉寶)나 옥인(玉印)이 제작된 의례에서는 인장을 담은 인통을 넣는 인록(印蠹)과 인주를 담은 주통을 넣는 주록(朱蠹)용으로 제작되었다. 민희빈에게 올린 세자빈용 옥인(玉印)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과 왕비, 대비에게 올려졌기에 보(寶)의 격을 가지고 있었다. 담은 인장의 종류

軌』(1753, 奎14926), 『淑嬪上諡都監儀軌』(1772, 奎13491),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6, 奎13269).

14) 경종의 모친인 희빈장씨는 경종 재위 당시 옥산부대빈으로 추존되고 묘지는 옥산부대빈묘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모친인 숙빈의 묘를 원으로 올릴 때 희빈의 묘를 봉원(封園)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인빈김씨는 영조대에, 정빈이씨(진종의 묘는 아들이 추존왕이 된 정조대에, 수빈박씨(순조)의 묘는 순조대에, 영빈이씨(장조)의 묘는 사도세자가 추존왕이 된 고종 대에 원으로 승격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15) 기록에 따르면 숙빈과 인빈의 상호봉원의례에서는 황동제 자물쇠, 동제납염장식자물쇠가 사용되었다.

에 따라 철제입사자물쇠의 용도가 나뉘는 것은 현전하는 17세기~20세기 초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상호도감별로 시호를 받는 사람의 신분과 의례의 세부 내용이 다르기에 철제입사자물쇠가 이 시기 모든 상호도감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다.¹⁶⁾ 황동제 자물쇠 또는 도금, 납염 자물쇠만 사용한 의례도 있다. 인장을 담는 함에 철제입사자물쇠가 사용된 의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모든 존호를 올리는 의례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표 2]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존호례에서 철제입사자물쇠가 인장을 담는 함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숙종-영조 연간 철제입사자물쇠가 제작된 상호도감 유형과 자물쇠 용도

유형	연도	의례명	소장처 서지번호	의례성격	자물쇠 용도	비고
1	1677	장렬왕후 명성왕후 존숭도감의례	奎13258	대왕대비, 왕대비가 된 선왕비(인조, 현종)에게 존호 올림	인록, 주록 (각1, 총4부)	금보
	1686	장렬왕후 존숭도감의례	奎13262	대왕대비에게 존호 올림.	인록, 주록 (각1, 총2부)	옥보
	1726	인원왕후 선의왕후 존숭도감의례	奎13280	대왕대비, 왕대비가 된 선왕비(숙종, 경종)에게 존호 올림	인록, 주록 (각1, 총4부)	옥보
2	1713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존숭도감의례	奎13267	숙종과 인원왕후, 사망한 숙종의 왕비 인경왕후, 인현왕후에게 존호 올림.	호갑 (각2, 총8부)	옥보
	1754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	奎13294	사망한 숙종, 인경왕후,	호갑 (각2, 총8부)	금보

16) 숙종 연간 시행된 단종, 정순왕후의 복위추상, 영조 연간 시행된 중종비 단경왕후의 복위추상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의례를 통해 본 속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인원왕후가상 존호도감의례		인현왕후에게 더해 올림. 대왕대비인 인원왕후에게 존호 올림		
	1756	인원왕후 화경숙빈 영조정성왕후 존승도감의례	奎13269	대왕대비, 현왕, 현왕비에게 존호를 올림. 현왕 모친 숙빈에게 시호올림	호갑 (각2, 총8부)	옥보
	1773	현종명성왕후 영조정성왕후 정순왕후 존호도감의례	奎13265	현왕과 현왕비에게 존호 올림. 사망한 현종, 명성왕후, 현왕비 정성왕후에게 시호 올림	금보호갑 (각2, 총10부) 옥보호갑 (각2, 총10부)	유형 5와 중복
3	1681	정종정안왕후 시호도감의례	奎13243	공정왕으로 있었던 정종에게 묘호와 시호 올림.	인록, 주록 (각1, 총4부) 호갑 (각2, 총4부)	금보
	1683	태조신의왕후 태종원경왕후 시호도감의례	奎14927	태조, 신의왕후, 태종, 원경왕후에게 시호를 더해 올림.	태조, 태종 호갑 (각2, 총4부)	금보
	1740	효종가상존호 도감의례	奎13264	효종에게 시호를 더해 올림	호갑(2부)	금보
	1773	현종명성왕후 영조정성왕후 정순왕후 존호도감의례	奎13265	현왕과 현왕비에게 존호 올림. 사망한 현종, 명성왕후, 현왕비 정성왕후에게 시호 올림	금보호갑 (각2, 총10부) 옥보호갑 (각2, 총10부)	유형 2와 중복

2. 철제입사자물쇠의 제작 전거

도감은 업무에 따라 작방을 나누었는데 보통 옥책문, 제문, 약장 서술을 담당하는 작방, 옥책, 금보나 옥인 제작 및 관련 의물을 제작하는 작방, 노부행렬을 위한 각종 의물을 제작하는 작방으로 나뉘었다. 보통 철제입사자물쇠는 금보나 옥인을 담는 보인록(寶印籠)이나 보인록을 담는 호갑(護匣)을 잠그는데 사용되었다. 의물로 사용되는 것이었기에 자물쇠의 세부적인 쓰임은 제도나 예제에 입각했다. 인장함의 자물쇠 용도는 조선 초에 완비된 보인록 구성제도에 기반했으며, 숙종~영조 연간에도 최대한 준수되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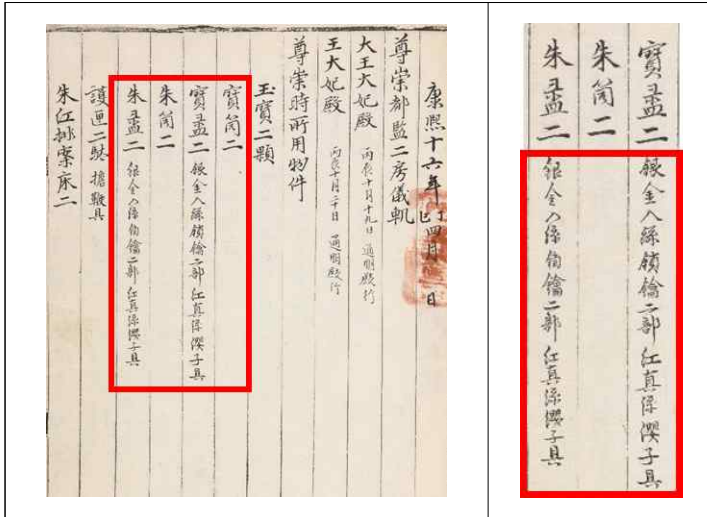
[표 3] 조선시대 보인록에 구성되는 함과 자물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686년 인조비 장렬왕후 존승도감 제작 옥보함과 보록자물쇠		
	옥보(玉寶) 보통(寶筒) : 옥보를 담는 금속제 내함 보록(寶籠) : 옥보를 담은 보통을 담는 외함	
	보록 자물쇠 호갑(護匣) : 보록과 인주를 담은 주록(朱籠)을 담는 외함 (예시 유물은 주록, 호갑이 공개되지 않았음) 호갑 자물쇠	

외함인 보인록에서 록(籠)이라는 명칭 사용은 조선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인장을 담는 의물의 전체적인 구성은 조선 이전에 갖춰진 것을 14세기 말-15세기 초 정비해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태종실록』 태종 8년(1408) 기사에는 종묘예제에 사용하는 관복, 의물, 음악울 송의 제도를 따르

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⁸⁾ 보인록 구성제도 역시 중국 송에서 시작되었음이 『송사』 「여복지」를 통해 확인된다.¹⁹⁾ 이 기록에는 송 태조와 태종이 보를 만들고 존호를 올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태종 연간 명나라에서 온 인장과 구성물에 대한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의 보록 의장 제도는 표면을 모두 금으로 장식하는 금장(金裝)을 이증으로 장식한 후 안에는 금상(金牀)을 설치하고, 숨을 넣은 비단요를 바닥에 깔 다음에 호려, 벽석, 산호, 마노 등으로 장식했다. 반면 조선의 보록의 표면에 주칠(朱漆)을 하고 안에는 비단을 바르고 장식(粧錫)에는 도금을 했으며 바닥에 모직요를 까는 정도여서 중국의 제도에 비해 매우 실용적이고 검소하게 제작되었음이 파악된다.²⁰⁾ 존호를 올리고 인장과 옥책을 올리는 의례는 고려시대에도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호도감에서 인장과 옥책, 자물쇠 등 관련 구성물에 대한 예제와 제작의 근거는 송의 예제와 고려의 예제가 결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17) 김삼대자, 「조선 어보의 보록제작과 특징」, 『왕의 상징 어보』, 2012, 196쪽.
18) 『太宗實錄』卷16, 태종8년(1408) 9월 24일, “禮曹又啓: “謹按宋朝熙寧元年, 詔令兩制以上至臺諫官與太常禮院, 同詳定易月服除之後郊廟之制, 服冕, 車輅, 儀物, 音樂緣神事者, 皆不可廢, 詔從之. 前日, 本曹狀申卒哭之後, 宗廟致齋, 既依歷代之典, 其合用冠服, 儀物, 音樂緣神事者, 皆依宋制, 庶合情義.” 從之.”
19) 『宋史』輿服志, “寶 秦制 天子有六璽 又有傳國璽 歷史因之 唐改爲寶 其制有八 五代亂離 或多亡失 周廣順中 如造二寶 其一曰「皇帝承天受命之寶」 一曰「皇帝神寶」 太祖受禪 傳此二寶 又製「大宋受命之寶」 至太宗 又別製「承天受命之寶」 是後 諸帝嗣服 皆自爲一寶 以「皇帝恭膺天命之寶」 爲文 凡上尊號 有司製玉寶 則以所上尊號爲文 寶用玉 箋文 廣四寸 九分 厚一寸二分 填以金盤龍鈕 … 納於小盞.” 김삼대자, 앞의 논문, 2012, 197쪽 재인용.
20) 김삼대자, 앞의 논문, 2012, 196~197쪽.
21) 의종이 공예태후에게 옥책과 금보를 올린 다음의 기사와 같이 『고려사』에는 왕이나 왕비, 태후에게 조선시대 존호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례 내용이 짧은 기사들이지만 다수 확인된다. 『高麗史』世家17, 의종3년(1149). “癸卯 上王太后玉冊·金寶, 曲宴于康安殿.” 아울러 『원사』와 『고려사』에는 송과 명 사이에 존립했던 국가였던 원에서도 존호례가 시행되었고, 원에서 고려의 황태후에게 존호를 내린 기록이 함께 확인되어,



도 1.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도감의궤』(1677)의 보록, 주록
철제입사자물쇠 기록(銀金入絲鎖鑰)

의궤에서 자물쇠에 대한 기록은 하나의 독립된 구성물로 배치되어 서술되어 있지 않다. 대신 호갑, 보록 등 자물쇠가 사용되는 해당 의물 기록에 구성품으로 명시되어 있다(도 1). 이는 자물쇠의 정체성이 의례에서 다른 의물들과 마찬가지로 예제를 근거로 한 의미와 용도를 동시에 지닌 독립된 의물이라기보다는 예물의 입구를 잠그기 위한, 철저히 자물쇠가 가진 본래의 용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자물쇠는 담편, 인끈, 다회끈 등 하나의 의물 내 부속물로 언급되는 공예품들과 마찬가지로 언급된다.

『국조상례보편』에는 호갑(護匣)에 쓰는 입사자물쇠의 예제가 다음과 같이

송대부터 이어진 제도가 원, 명에 계승되었으며 중국과 영향관계를 주고 받으며 확립된 고려의 존호와 관련된 예제가 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시되어 있다.

“호갑(護匣)-갑의 겉은 흑웅피(黑熊皮)를 쓰고 소상에는 황록피(黃鹿皮)를 쓴다. 안은 백마피(白馬皮)를 쓴다. 안에는 홍록피(紅鹿皮)를 바르고 덮개 및 네 모퉁이는 청자서피(靑紫黍皮)로 교차되게 쓴다. 장식 및 시약은 금은으로 번갈아 입사(入絲)한다. 담편(擔鞭)은 백서피를 쓰는데, 안쪽은 백마피를 쓴다. 좌우에는 자록피(紫鹿皮)로 된 끈(纓子)이 있다.”²²⁾

1788년 편찬된 『춘관통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18세기 명문화 된 예제에서 보록 구성물 속 철제은입사자물쇠의 쓰임을 알 수 있다.²³⁾ 기법명은 『국조상례보편』과 동일한 금은교입사(金銀交入絲)가 확인된다.

숙종~영조 연감을 포함해 현전하는 17세기 이후 의례에서는 철제은입사자물쇠가 호갑(護匣)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²⁴⁾ 숙종~영조 연간 편찬된 도감의례에 기록된 철제은입사자물쇠의 용도와 기법을 추출하면 [표 4]와 같다. 의례에 확인되는 이 시기 입사 기법 지칭 명칭은 금은교입사(金銀交入絲), 은금입사(銀金入絲), 은입사(銀入絲), 입사(入絲) 등이다. 아울러 III-2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주성(鑄成), 타조(打造) 등 자물쇠의 제작기법이 함께 명시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전하는 유물은 많지 않지만 이를 통해 실제 이 시기 왕실 주도로 제작된 철제은입사자물쇠의 용도와 기법을 가늠할 수 있다.

22) 『國朝喪禮補編』, 國朝喪禮補編圖說, 請諡宗廟, 護匣. “護匣所以盛寶盃朱盃者. 匣, 表, 用黑熊皮小喪, 黃鹿皮, 裏白馬皮. 內塗紅鹿皮, 蓋及四隅, 錯裏靑紫黍皮. 粧飾及匙鑰, 金銀交入絲. 擔鞭, 白黍皮, 裏白馬皮. 左右, 有紫鹿皮纓子.”

23) 『春官通考』 卷86, 凶禮, 補編請諡宗廟圖說, 護匣, “匣, 表, 用黑熊皮小喪, 黃鹿皮, 裏白馬皮. 內塗紅鹿皮, 蓋及四隅, 錯裏靑紫黍皮. 粧飾及匙鑰, 金銀交入絲. 擔鞭, 白黍皮, 裏白馬皮. 左右, 有紫鹿皮纓.”

24)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36~237쪽.

[표 4] 숙종~영조 연간(1674-1776) 도감의궤에 기록된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기법명

연도	의궤명	소장처 서지번호	작방	자물쇠 용도	기록된 기법명
1675 (숙종1)	현종국장도감의궤	奎13539	3房	호갑	正鐵打造金銀交 入絲
1676 (숙종2)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36	2房	호갑	銀金入絲
1677 (숙종3)	인경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082	2房	보록, 주록	入絲
1677 (숙종3)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 도감의궤	奎13258	2房	보록, 주록	金銀交入絲
1680 (숙종6)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	奎13084	3房	보록, 주록	金銀入絲
				호갑	金銀交入絲
1681 (숙종7)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 의궤	奎13243	1房	보록, 주록, 호갑	金銀交入絲
1681 (숙종7)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53	3房	호갑	金銀交入絲
1683 (숙종9)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 후시호도감의궤	奎14927	1房	호갑	金銀交粧飾
1684 (숙종10)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奎14869	3房	호갑	金銀交入絲
1686 (숙종12)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62	2房	보록, 주록	金銀交入絲
1686 (숙종12)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45	2房	호갑	銀金入絲
1687 (숙종13)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 의궤	奎14911	1房	보록, 주록	入絲
1690 (숙종16)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091	2房	호갑	交金銀入絲
1690 (숙종16)	옥산대빈승후수책시책례 도감도청의궤	奎13201	2房	보록, 주록	金銀入絲
1691 (숙종17)	장렬왕후부묘도감도청 의궤	奎13525	2房	호갑	銀金入絲

의례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1694 (숙종20)	숙종인현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086	3房	보록, 주록	入絲
1696 (숙종22)	경종단의후가례도감의궤	奎13092	3房	인록, 주록	入絲
1698 (숙종24)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奎13503	2房	호갑	金銀入絲
1701 (숙종27)	인현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奎13555	3房	호갑	金銀交互絲
1702 (숙종28)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89	3房	호갑	金銀入絲
1718 (숙종44)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奎13494	3房	인록, 주록	銀入絲
1718 (숙종44)	단의빈예장도감도청의궤	奎13573	3房	인록, 주록	銀入絲
1718 (숙종44)	경종선의후가례도감의궤	奎13094	3房	인록, 주록	入絲
1720 (경종즉위)	숙종국장도감의궤	奎13548	3房	보록, 주록, 호갑	正鐵打造後金銀交互絲
1721 (경종1)	영조왕세제수책시책례도감의궤	奎13099	2房	인록, 주록	入絲
1722 (경종2)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51	2房	인록, 주록	銀金入絲
1725 (영조1)	경종국장도감의궤	奎13566	3房	보록, 주록	正鐵打造後金銀交互絲
1725 (영조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奎14909	2房	인록, 주록	入絲
1726 (영조2)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0	2房	보록, 주록	入絲
1727 (영조3)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6	3房	인록, 주록	入絲
1731 (영조7)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76	3房	호갑	金銀交互絲
1735 (영조11)	현빈옥인조성도감의궤	奎14947	-	인록, 주록	入絲
1736 (영조12)	사도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108	2房	인록, 주록	入絲

1739 (영조15)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 의궤	奎13506	2房	호갑	金銀入絲
1740 (영조16)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奎13264	1房	호갑	金銀入絲
1744 (영조20)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9	3房	인록, 주록	入絲
1751 (영조27)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奎13199	2房	인록, 주록	入絲
1752 (영조28)	효순현빈례장도감의궤	외규173 외규174	3房	인록, 주록	銀入絲
1754 (영조30)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 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 의궤	奎13294	2房	호갑	正鐵打造銀入絲 鎖鑰
1756 (영조32)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 왕후손순도감의궤	奎13269	2房	호갑	正鐵打造銀入絲
1773 (영조49)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 왕후정순왕후 상호도감의궤	奎13265	2房	호갑	正鐵打造銀入絲

『국조상례보편』은 흉례(凶禮)를 범주로 한 기록이기에 흉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의궤에는 상호도감이나 가례도감의 호갑, 보록 등에도 철제입사자물쇠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철제입사자물쇠의 사용에 대한 예제는 비단 흉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궤에서는 호갑의 자물쇠로 사용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며, 보(寶)를 담기 위한 보록 이외에 세자나 세자빈의 의례에서 조성되는 인장인 금인(金印)과 옥인(玉印), 은인(銀印)을 담기 위한 인록(印罌)과 인에 사용하는 인주를 담기 위한 주록(朱罌)에 장착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도 존재한다.

철제입사자물쇠는 사용자의 위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인지 위의 [표 4]와 같이 왕과 왕비, 대비를 대상으로 한 자물쇠에는 은입사를 한 후 금을 덧입히는 금은교입사(金銀交入絲)를 세자와 세자빈, 후궁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자

물쇠는 은입사(銀入絲)만 한 자물쇠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입사자물쇠는 철로 만들어지기에 금과 은이 장식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면 전체가 금빛에 철보다 사회적 위계가 높은 금속재료인 동의 일종인 동과 아연 합금재인 황동제 자물쇠, 도금 자물쇠보다 위계가 낮았다. 문헌기록과 현전하는 유물을 분석해보면 황동제 자물쇠를 사용한 사례가 철제입사자물쇠를 사용한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는 철제입사자물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양난(兩難) 전후 동과 철 수급 상황, 사회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Ⅲ.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1. 자물쇠의 입사 시문 기술과 입사장

현재 자물쇠는 형태에 따라 크게 P형과 ㄲ형, ㄷ형으로 분류된다. 삼국~통일신라시대에는 P자형이 주류를 이뤘고, 고려시대에는 ㄲ자형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ㄷ자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물쇠가 제작되었다.²⁵⁾ 현전하는 조선의 왕실용 자물쇠 역시 ㄷ자형이 대부분이며, 철제입사자물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형태는 13~14세기 무렵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⁶⁾ 이 시기는 쪼음입사가 원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조선시대 철제입사자물쇠 대다수가 쪼음입사로 시문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ㄷ자형 자물쇠의 사용 시점과 기법의 적용 관계성도

25) 박민정, 「고려시대 자물쇠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9쪽.

26) 박민정, 위의 논문, 2019, 58~59쪽. 박민정은 ㄷ자 자물쇠가 고려시대 유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동계도금소형불감> 등에 새겨진 자물쇠 형태 묘사 등을 근거로 적어도 13~14세기에는 ㄷ자 자물쇠가 사용했을 것으로 견해를 제시했다. 이미 소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표상화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필자도 박민정의 견해에 동의한다.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철제입사자물쇠의 제작기술은 의궤에서는 주조와 단조가 모두 확인된다. 주성(鑄成)과 타조(打造)로 자물쇠 제작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의궤는 영조30년(1754) 편찬된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에 기록된 옥책의궤와 금보호감의 정철타조은입사쇄약(正鐵打造銀入絲鎖鑰)을 시작으로 소수지만 정조대까지 몇몇 의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철제입사자물쇠의 제작 및 시문 기술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²⁷⁾ 반면 의궤 내의 도설은 형태만 함과 함께 그려져 있어 용례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영조 연간 제작된 철제입사자물쇠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현재 공개되지 않거나 의궤에 제작 기록은 명확하나 부품이 결실되어 떨어지기 쉬운 자물쇠의 특성상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소실된 유물은 [표 5]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유물의 수는 매우 적다.






27)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6) 寶印護匣 正鐵打造銀入絲鎖鑰具, 『莊獻世上諡封園都監儀軌』(1776) 玉印護匣 鎖鑰匙正鐵打造銀入絲, 『眞宗追崇都監儀軌』(1777) 金寶護匣鎖鑰 匙正鐵打造銀入絲, 『孝懿王后冊禮都監儀軌』(1778) 金寶印盃, 朱盃鎖鑰 正鐵鑄成銀入絲, 金寶護匣鎖鑰匙 正鐵鑄成銀入絲, 『貞純王后尊崇都監儀軌』(1778) 玉寶朱盃, 印盃鎖鑰匙具 正鐵鑄成銀入絲, 護匣鎖鑰匙二部 正鐵鑄成銀入絲.

[표 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숙종~영조 연간 철제입사자물쇠

			
장렬왕후 옥보 철제입사자물쇠 (금은교입사, 17세기)		인경왕후 옥보 철제입사자물쇠 (은입사, 18세기)	
			
인현왕후 옥보 보록 자물쇠 (금은교입사, 18세기)		선의왕후 옥보 자물쇠 (금은교입사, 18세기)	
			
정성왕후 옥보 보록 자물쇠 (은입사, 1778)		정순왕후 금보 보록 자물쇠 (금은교입사, 18세기)	

조선시대 왕실용 철제입사자물쇠의 문양 시문은 쪼음입사로 이루어졌다. 쪼음입사는 기물 전체에 평정질을 여러번 반복해 기물 전체 면에 ㉞형태의 음각 꺼스렁이 선을 아주 잘게 만든 후 음각선의 홈과 돌기 사이사이에 실 형태로 가공한 장식재료를 쪼아 박아 감입해 장식하는 입사의 세부기법이다. 입사를 하기 전 이루어지는 평정질로 완성된 꺼스렁이 음각선은 쪼음입사가 시문된 후 장식재가 기면에 물려 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평정질은 문양시문 정교함을 결정짓는 작업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입사기법을 전승한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 분야의 평정질 기술은 조선의 기법을 유추하게 한다. 현재 입사장 분야에서는 네 번의 평정질을 진행해 장식재의 물림을 위한 촘촘한 음각선을 완성한다(표 6).

[표 6]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의 기물 표면 평정질 단계와 평정질 후 입사 장식재 물림

평정질 반복 단계에 따른 기물 표면 변화				평정질 후 장식재 물림
				
1차	2차	3차	4차	은사 쪼아 박기

철로 제작되는 자물쇠의 특성상 평정질 선에 부식이 이루어지면 훼손이 진행되어 장식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왕실 주도로 제작된 철제입사자물쇠 유물 중 일부 유물에서 세밀한 평정질의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왕실공역에서 제작된 쪼음입사 평정질 양상과 평정질 후 장식재료를 쪼아 박아 은선을 감입하는 기술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표 6]에 분석한 입사장의 시문 원리와 거의 동일해 당시 기술이 전승되어 현재에 이르렀음도 함께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남아있는 왕실용 철제입사자물쇠의 평정질은 매우 작은 기면 내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인 정질을 통한 음각 꺼스럼이 선을 완성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왕실 공역에 높은 기술력을 지닌 입사장이 참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표 7).

의궤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표 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전 왕실용 철제입사자물쇠의
기면 쪼음입사 평정질 양상

			
			
소헌왕후 금보 보록자물쇠 평정질 흔적(1446)	선의왕후 옥보 보록자물쇠 평정질 흔적(18세기)	정순왕후 옥보 보록자물쇠 평정질 흔적(18세기)	정순왕후 옥보 보록자물쇠 평정질 흔적(19세기)

의궤에는 철제자물쇠 문양의 입사시문에 대해 두 가지 시문법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은입사(銀入絲)로 기록되어 있는 시문법이다. 쪼음입사기법을 이용해 문양을 은으로만 전체 시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금은교입사(金銀交入絲)로 기록되어 있는 시문법이다. 은입사와 동일하게 쪼음입사로 문양을 은으로 쪼아 박아 1차 시문한 후 은이 감입된 문양 위에 다시 금을 덧입혀 시문하는 기법이다. 현전하는 유물 중 1726년(영조2) 인원왕후, 선의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자물쇠인 선의왕후의 옥보 보록 자물쇠는 의궤에 기록된 금은교입사의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어 주목된다. 전체적인 자물쇠의 형태를 주조기법(鑄造技法)으로 제작한 이 자물쇠는 쪼음입사기법으로 문양을 표면 전체에 은으로 시문한 후, 그 위에 금을 다시 한번 입혀 문양을 장식했다(표 8).

[표 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선의왕후 옥보 보록
철제금은교입사자물쇠 시문 양상

	
<p>입혀진 금이 대부분 결실된 면 쪽을 통해 1차적으로 은입사가 먼저 시문된 양상이 확인됨.</p>	<p>반대편은 화당초문에 은입사를 한 후 금을 다시 입힌 모습이 온전히 남아있어 금은교입사의 형태가 확인됨</p>

한편 숙종~영조 연간 편찬된 의궤에는 보록 철제입사자물쇠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성명과 소속 관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제작자의 유형을 짐작하게 한다. 또 자물쇠 제작을 진행한 같은 작방의 소속 장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도감에서 입사장이 직접 자물쇠 제작까지 진행했는지 여부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 장인제도는 재료, 공정 등의 성격에 따라 분야가 매우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 제한된 기한 내에 많은 수의 공예품 제작을 수행해야 하는 권설도감에서는 법전 내에 명시된 경공장(京工匠) 분야를 공역 필요에 맞춰 보다 세분화해 장인 분야를 구성해 인력을 배치해 공역을 수행했다. 따라서 공역에는 법전 기록에는 없는 분야들도 상당수다. 입사장은 『경국대전(經國大典)』(1489)부터 법전에 명문화되어 경공장의 상설분야로 기록되어 있어, 도감이 설치되면 차출되었다. 입사장은 기본적으로 금속공예 제작 및 시문 기술을 지니고 있었기에 도감 내에서 입사 시문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입사장이 자물쇠를 제작하는 쇠약장(鎖鑰匠) 등으로 배정받아 자물쇠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기간 내 도감을 중심으로 입사장과 쇠약장을 도감에 따라 다르게 수행했던 장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종~숙종 연간(1659-1720) 활동했던 장인 박언신

(朴彦信, 생몰년미상)은 처음에는 입사장으로 활동이 확인되나 이후 쇠약장(鎖鑰匠)으로서의 활동이 나타난다.²⁸⁾ 경종~영조 연간(1720-1776) 활동한 최창업(崔昌業, 생몰년미상)은 민간의 사장(私匠)으로 도감에 차출된 사례로 직무를 교차가 확인된다. 최창업은 입사장(入絲匠)으로 처음 공역에 차출되었는데 이후 입사장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쇠약장을 담당하기도 해 민간에서 자물쇠를 제작하는 장인이면서 동시에 입사기술을 지니고 있는 장인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⁹⁾ 최창업도 박언신과 마찬가지로 인장 의물을 제작하는 작방에서만 활동이 확인된다.

따라서 숙종~영조 연간 상존호도감을 포함한 이 시기 전체 도감 차출 입사장 중 시문 또는 제작, 시문 동시 진행 여부를 자물쇠 제작을 담당할 작방의 입사장 및 관련 장인의 소속 여부를 정리하면 도감 내에서 철제입사자물쇠 제작의 형태-문양 시문 분업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일반적으로 입사장과 열쇠 기형 제작 관련 장인인 시장(匙匠), 쇠약장(鎖鑰匠) 등이 함께 소속되어 있어 자물쇠 형태 제작-문양시문이 도감 내에 분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조 30년(1754)에 시행된 숙종인경왕후인 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 의례에는 기존의 시장, 쇠약장 외에 보록 관련 열쇠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보시장(寶匙匠)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입사장과 같은 2방에 소속된 보시장은 훈련도감에서 장인 7명을 차출하여 구성했으며, 도감에서만 확인되는 임시 분야이다.

차출된 입사장 중 소속을 분석하면 경공장 중 범전에 명시된 입사장 배속 관청인 공조(工曹), 상의원(尙衣院)과 그 외 관상감(觀象監)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공장을 뜻하는 경장(京匠)이라 기록되기도 했다. 또 양난 이후에는

28) 朴彦信이 참여한 공역은 다음과 같다. 『肅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1667, 入絲匠), 『神德王后祔廟都監儀軌』(1669, 鎖鑰匠), 『仁宣王后祔廟都監儀軌』(1676, 鎖鑰匠).

29) 崔昌業이 참여한 공역은 다음과 같다. 『肅宗國葬都監儀軌』(1720, 入絲匠), 『景宗國葬都監儀軌』(1725, 入絲匠),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1731, 入絲匠), 『莊祖世子愛冊時冊禮都監儀軌』(1736, 鎖鑰匠)이 있다.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공장을 중앙의 군영에 배속시켜 중앙군영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직접 제작하게 했는데, 철제입사자물쇠 관련 입사장 중에는 훈련도감(訓練都監: 訓局),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소속 입사장도 있었다. 아울러 소수지만 민간의 사장(私匠)이 시문에 간여한 사례도 확인된다. 자물쇠 제작 장인은 자물쇠-열쇠를 모두 제작하거나 자물쇠와 열쇠 제작이 분화, 소속된 사례가 모두 나타난다.

[표 9] 숙종-영조 연간(1674-1776) 도감의궤에 기록된
철제입사자물쇠의 관련 입사장

연도	의궤명	소장처 서지번호	분야명	작 방	성명(원소속)	자물쇠, 열쇠 장인(인원)
1675 (숙종1)	현종국장도감 의궤	奎13539	입사장	3방	李浚良, 李萬石 (기록없음)	匙匠(2)
1676 (숙종2)	인선왕후부묘 도감의궤	奎13536	입사장	2방	安善一, 李天業, 姜宗, 朴成建(이상 공조)	鑰匠(3), 匙匠(1)
1677 (숙종3)	인경왕후책례 도감의궤	奎13082	입사장	2방	姜大益, 朴宗善 (기록없음)	鎖鑰匠(1)
1677 (숙종3)	장렬왕후명성 왕후손승도감 의궤	奎13258	입사장	2방	朴宗善, 姜大益 (기록없음)	鎖鑰匠(1), 匙匠(2)
1680 (숙종6)	숙종인현후가 례도감의궤	奎13084	입사장	3방	安自雲, 安命吉 (기록없음)	匙匠(3)
1681 (숙종7)	정종정안왕후 시호도감의궤	奎13243	입사장	1방	李浚良, 姜宗 (기록없음)	匙匠(2)
1681 (숙종7)	인경왕후국장 도감의궤	奎13553	입사장	3방	李浚良(京工)	匙匠(3)
1683 (숙종9)	태조신의왕후 태종원경왕후 시호도감의궤	奎14927	입사장	1방	李浚良, 姜宗, 安萬雄, 安命吉 (기록없음)	鎖鑰匠(1), 匙匠(3)

의례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1684 (숙종10)	명성왕후국장 도감의궤	奎14869	입사장	3房	姜宗, 安萬雄, 李後良 (기록없음)	匙匠(1), 鑰染匠(1)
1686 (숙종12)	장렬왕후존숭 도감의궤	奎13262	입사장	2房	姜宗, 金夢赤 (기록없음)	匙匠(3), 鎖鑰匠(2)
1686 (숙종12)	명성왕후부묘 도감의궤	奎13545	입사장	2房	朴成建 (기록없음)	鎖鑰匠 (2, 선공감), 鑰匠(2, 공조)
1687 (숙종13)	장렬왕후책보 수개도감의궤	奎14911	입사장	1房	姜宗, 朴尙男 (기록없음)	匙匠(3), 鎖鑰匠(1)
1690 (숙종16)	경종왕세자책 례도감의궤	奎13091	입사장	2房	安萬雄 (기록없음)	匙匠(2)
1690 (숙종16)	옥산대빈승후 수책시 책례도감도청 의궤	奎13201	입사장	2房	李厚良, 安萬雄, 安萬益, 劉五昌 (기록없음)	匙匠(2), 鎖鑰匠(1)
1691 (숙종17)	장렬왕후부묘 도감도청 의궤	奎13525	입사장	1房	朴成建(관상감)	鎖鑰匠 (1, 총융청), 鑰染匠 (1, 선공감)
1694 (숙종20)	숙종인현왕후 책례도감 의궤	奎13086	입사장	3房	姜宗, 安命吉, 安萬雄 安萬益, 安樂成, 鄭有吉 (기록없음)	匙匠(4)
1696 (숙종22)	경종단의후가 례도감의궤	奎13092	입사장	3房	朴成建, 安莫成 (기록없음)	鎖鑰匠(1), 匙匠(3)
1698 (숙종24)	단종정순왕후 복위부묘 도감의궤	奎13503	입사장	2房	安萬雄 (기록없음)	匙匠(3), 鎖鑰匠(1)
1701 (숙종27)	인현왕후국장 도감도청 의궤	奎13555	입사장	3房	安萬雄, 鄭武信, 鄭二山 (기록없음)	匙匠(3), 鎖鑰匠(4)

1702 (숙종28)	숙종인원왕후 가례도감 의궤	奎13089	입사장	3房	安樂成 (기록없음)	匙匠(3), 鎖鑰匠(1)
1718 (숙종44)	민회빈복위선 시도감의궤	奎13494	입사장	3房	表時才(훈국), 安萬興(공조)	匙匠(2), 鎖鑰匠(1)
1718 (숙종44)	단의빈예장도 감도청의궤	奎13573	입사장	3房	安萬雄, 表時才, 鄭武臣 (기록없음)	匙匠(2), 鎖鑰匠(1)
1718 (숙종44)	경종선의후가 례도감의궤	奎13094	입사장	2房	鄭有成(어영청), 安萬雄(공조)	匙匠(4: 공조2, 훈국2)
1720 (경종 즉위)	숙종국장도감 의궤	奎13548	입사장	3房	鄭武信, 崔昌業, 陸三建	匙匠(2), 鎖鑰匠(1)
1721 (경종1)	영조왕세제수 책시책례도감 의궤	奎13099	입사장	2房	鄭有成(금위영), 鄭萬成 (기록없음)	匙匠(4: 사장1, 훈국3), 鎖鑰匠(1, 수 어영)
1722 (경종2)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부묘 도감의궤	奎13551	입사장	2房	劉起漢 (기록없음)	匙匠(1), 鎖鑰匠(2)
1725 (영조1)	경종국장도감 의궤	奎13566	입사장	3房	表時才, 崔昌業, 李弘成 (기록없음)	鎖鑰匠(1), 匙匠(2)
1725 (영조1)	효장세자책례 도감의궤	奎14909	입사장	2房	鄭有成(금위영)	匙匠(2: 사장1, 공조1) 鎖鑰匠 (1, 훈국)
1726 (영조2)	인원왕후선의 왕후존숭도감 의궤	奎13280	입사장	2房	李弘成, 表時才 (이상 훈국)	鎖鑰匠 (1, 수어영), 匙匠(1, 공조)
1727 (영조3)	효장세자가례 도감의궤	奎13106	입사장	3房	鄭有成(금위영)	匙匠(3: 훈국, 내수사, 사장) 鎖鑰匠(1: 注匠 겸함, 훈국)

의례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1731 (영조7)	선의왕후국장 도감의궤	奎13576	입사장	3房	李弘成(훈국), 崔昌業(사장)	匙匠(2: 공조, 훈국), 鎖鑰匠 (1: 사장)
1735 (영조11)	현빈옥인조성 도감의궤	奎14947	입사장	-	鄭有成(상의원)	匙匠(2: 공조), 鎖鑰匠(1: 사장)
1736 (영조12)	사도세자책례 도감의궤	奎13108	입사장	2房	鄭有成(상의원)	匙匠(2: 공조), 鎖鑰匠 (1: 훈국)
1739 (영조15)	단경왕후복위 부묘도감의궤	奎13506	입사장	2房	鄭有成(상의원)	匙匠 (2: 금위영), 鎖鑰匠 (1: 훈국)
1740 (영조16)	효종가상시호 도감의궤	奎13264	입사장	1房	劉已漢, 劉老味, 李次俊 (이상 상의원)	匙匠(3: 공조2, 금위영1) 鎖鑰匠 (1: 훈국)
1744 (영조20)	사도세자가례 도감의궤	奎13109	입사장	3房	朴二重(도감) 朴介同, 朴先伊, 劉起鉉 (이상 사장)	匙匠(3:공조), 鎖鑰匠(12: 군기시3,외장 3,사장2,금위 영1,공조2,훈 국1)
1751 (영조27)	의소세손책례 도감의궤	奎13199	입사장	2房	柳起漢 (기록없음)	匙匠(2: 훈국), 鎖鑰匠 (1: 군기시)
1752 (영조28)	효순현빈예장 도감의궤	외규173 외규174	입사장	3房	柳起漢, 金老味 (이상 공조)	匙匠(2: 훈국), 鎖鑰匠(1: 군기시)
1754 (영조30)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인원 왕후가상존호 도감의궤	奎13294	입사장	2房	劉起漢, 李次俊 朴次順, 李枝萬 (이상 공조)	匙匠(7: 훈국), 寶匙匠 (6: 훈국), 鎖鑰匠 (2: 훈국)

1756 (영조32)	인원왕후숙빈 영조정성왕후 존숭도감의궤	奎13269	입사장	2房	劉起漢, 劉道亨, 李振輝, 李次俊 (이상 공조)	匙匠(6: 훈국5, 사장1), 寶匙匠 (5: 훈국)
1773 (영조49)	현종명성왕후 영조정성왕후 정순왕후상호 도감의궤	奎13265	입사장	2房	鄭順興, 李振芳, 李振威 (이상 훈국)	匙匠(12: 훈국7, 사장3, 공조2), 鎖鑰匠 (5: 훈국4, 사장1),

2. 자물쇠에 사용된 금속재료

의궤에 기록된 재료의 명칭은 십품은(十品銀), 천은(天銀) 등 당시 순도에 따라 사용된 명칭이 사용되거나 입사천은(入絲天銀) 또는 한음은(汗音銀)과 같이 입사시문에 사용되기 위해 가공된 순도가 높은 은 또는 땀을 위해 가공한 은 등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들이 등장한다. 동의 경우 숙동철(熟銅鐵)과 같이 단조가 가능한 상태로 가공한 구리 또는 구리합금의 동의 사용도 보여준다. 이처럼 의궤에 기록된 이들 명칭을 종합한다면, 당시 상호도감에서 제작된 철제입사자물쇠 재료의 품질과 용도에 따른 가공형태를 일부 짐작할 수 있다.

또 자물쇠와 함께 기록된 기법명은 교입사(交入絲)와 같은 명칭은 금과 은을 섞어 입사한 세부 재료와 구체적인 입사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숙종~영조 연간 상호도감에서 사용한 금, 은, 동, 철과 자물쇠의 기록 명칭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의례를 통해 본 숙종~영조 연간(1674-1776) 상존호도감 보록 철제입사자물쇠의 시문기술과 금속재료

[표 10] 숙종~영조 연간 상존호도감의례에 기록된
철제입사공예품의 금속재료 명칭³⁰⁾

연도	도감	소장처 서지번호	의례에 기록된 명칭				
			입사 기법명	금	은	동	철
1677 (숙종3)	장렬왕후명성 왕후존숭도감 의례	奎13258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황금 (黃金)	은자 (銀子)	숙동철 (熟銅鐵)	정철 (正鐵)
1681 (숙종7)	정종정안왕후 시호도감의례	奎13243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	백은 (白銀)	-	정철 (正鐵)
1683 (숙종9)	태조신의왕후 태종원경왕후 시호도감의례	奎14927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황금 (黃金)	백은 (白銀)	-	정철 (正鐵)
1686 (숙종12)	장렬왕후존숭 도감의례	奎13262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황금 (黃金)	정은자 (正銀子)	숙동철 (熟銅鐵)	정철 (正鐵)
1713 (숙종39)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인원 왕후존숭도감 의례	奎13267	입사 (入絲)	-	입사은 (入絲銀)	-	정철 (正鐵)
1726 (영조2)	인원왕후선의 왕후존숭도감 의례	奎13280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황금 (黃金)	천은 (天銀)	숙동철 (熟銅鐵)	정철 (正鐵)

30) 본 표는 각 도감의례의 잡물실입질(雜物實入質), 실입질(實入質), 품목질(品目質), 용환질(用還秩) 등에 적힌 철제입사자물쇠 관련 금속 재료에 대한 기록과 입사장소용(入絲匠所用), 쇠약장소용(鎖鑰匠所用) 등과 같이 도감에 참여한 장인에게 지급되는 재료 목록 중 철제입사자물쇠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1740 (영조16)	효종가상존호 도감의궤	奎13264	금은 교입사 (金銀 交入絲)	입사 황금 (入絲 黃金)	입사은 (入絲銀)	한음 동철 (汗音 銅鐵)	정철 (正鐵)
1754 (영조30)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인원 왕후가상존호 도감의궤	奎13294	은입사 (銀入絲)	-	입사 천은 (入絲 天銀)	한음 동철 (汗音 銅鐵)	정철 (正鐵)
1756 (영조32)	인원왕후화경 숙빈영조정성 왕후존숭도감 의궤	奎13269	은입사 (銀入絲)	-	입사 천은 (入絲 天銀)	한음 동철 (汗音 銅鐵)	정철 (正鐵)
1773 (영조49)	현종명성왕후 영조정성왕후 정순왕후존호 도감의궤	奎13265	은입사 (銀入絲)	-	입사 천은 (入絲 天銀)	한음 동철 (汗音 銅鐵)	정철 (正鐵)

1) 금, 은

[표 10]에서 확인되는 금과 은의 종류는 금은 황금(黃金)과 입사황금(入絲黃金), 은은 은자(銀子), 백은(白銀), 입사은(入絲銀), 입사천은(入絲天銀)으로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시문 장식재로 사용되었다. 기록의 금과 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제입사자물쇠를 제작할 때 입사장에게 지급되는 금과 은은 은만 사용할 경우 은입사를, 금과 은을 모두 지급할 경우 금은교입사 장식에 사용된다. 하지만 의궤에는 금은교입사(金銀交入絲)라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재료는 은만 기록된 것도 있다. 현전하는 17세기~20세기 초 의궤에 기록된 철제입사자물쇠 233건³¹⁾ 중 통계를 내보면 금과 은을 지급받아 제작한 금은교입사 자물쇠는 64건, 은만 지급 받은

31) 한 도감에서 용도, 재료, 형태, 규격, 기법 등 완전히 동일한 자물쇠 2점을 제작한 경우 1건으로 통계내었다.

금은교입사 및 은입사자물쇠는 169건이다.³²⁾

왕실공예품에 사용하는 금과 은은 최대한 국내에서 채굴, 취련해 순도를 높은 순금과 순은을 사용했다. [표 10]의 자물쇠는 물론 대다수의 철제입사자물쇠가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이를 순도에 맞춰 구분하기 위해 황금(黃金), 십품금(+品金), 정은(正銀), 백은(白銀), 십품은(+品銀), 천은(天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왕실의 입사공예에서 사용한 금과 은을 의궤 및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해 살펴보면 의궤에서 확인되는 입사용 금과 은이 당시 순도 및 무게 높은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선 황금(黃金)과 백은(白銀)은 조선 전반에 걸쳐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지칭할 때 꾸준히 등장하는 용어로 순도가 가장 높은 금과 은을 색으로 구분한 것이다. 국내에서 채굴될 경우 채굴지에서 취련까지 거쳐 왕실에 바쳐야 할 정도로 채굴, 소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재료였다.³³⁾ 그리고 금의 경우 국내 채굴량이 매우 적어 일본에서 수입한다 하더라도 왕실에서 사용하는 금과 은은 황금(黃金), 백은(白銀)으로 지정해 구입하기도 했다.³⁴⁾ 따라서 왕실 공역을 시행할 때 국내산 황금, 순은이 부족하면 바로 무역을 통해 황금을 수입할 정도로 왕실공예품에서

32) 김세린, 앞의 논문, 2019, 63~69쪽.

33) 순도가 높은 금과 은은 채굴량도 많지 않아 국가에서도 꾸준히 진상하는 채굴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호조에서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연간 수요량도 결정했다. 또 중국에서 왕실 일원에게 이를 하사하면 尙衣院에 보관해 관리하게 할 정도로 사용량 및 수요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졌다. 『太宗實錄』 卷18, 태종9년(1409) 10월 21일, “顯仁妃遺貞懿宮主白銀一百兩, 命藏之尙衣院.”

34) 중종 37년(1542)에는 은 무역에 대해 논의하면서 황금무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는데, 일본에서 개국초부터 이 시기까지 꾸준히 황금무역이 이뤄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金 무역의 경우 金으로 표기되었지만 이 기록을 포함해 순도 높은 금인 黃金을 수입할 때는 黃金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한다는 점이다. 『中宗實錄』 卷98, 중종37년(1542) 윤5월 23일, “壬申/臺諫啓倭銀勿買事, 答曰: “日本商物, 自祖宗朝, 至于今, 黃金則買之. 名雖異, 買則一也. 金則買之, 銀則不買, 日本國王, 必以爲待之不如古也.””

순도 높은 금, 은의 사용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은은 금에 비해 국내 채굴량이 많은 편이어서 왕실공예품의 일본산 왜은(倭銀)사용 금에 비해 그 비중이 적다.³⁵⁾ 황금은 19세기까지 입사공예품의 장식용 금에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백은은 숙종 대인 18세기 이후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중후반 이후 확인되는 순도에 따라 세분화해 구분한 은의 명칭인 십품은(十品銀), 천은(天銀), 정은(正銀)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금과 은의 품등인 십품(十品)은 순도에 따라 금, 은의 품등을 구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의 성(成)을 사용해 십성(十成)이라 부르기도 했다. [표 10]의 입사천은, 천은, 정은자는 십품은에 해당한다. 품(品)과 성(成)은 구분 기준이 있는데 제련 후 커다란 괴 형태로 굳힌 것들은 성(成), 알갱이나 아주 작은 괴의 형태로 굳혀 장식이나 세공에 사용된 것은 품(品)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장식재나 입사를 위해 실 형태로 가공한 것은 품금, 품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³⁶⁾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순도가 높은 최상급 금을 십품금 또는 십품금의 제련 후 가공한 형태가 입사귀와 같다 하여 엽자은(葉子金)이라 부르다며 세공용 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³⁷⁾ 실록에서 연산군 연간(1494-1506)부터 십품금, 십품은의 용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의궤에서 확인되는 시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35) 공역 사용분 부족에 따른 황금 수입은 조선왕조실록에 다수 등장한다. 아래의 내용은 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의 원자책봉 당시 공역에 사용할 금이 부족해 무역을 청해 허가한 내용이다. 이후 기록에서도 교역 대상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당시 금, 은 주요 교역국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 『明宗實錄』卷23, 명종12년(1557) 8월 3일, “... 啓曰: “工曹黃金貿易事, 啓請矣, 自上出內府之藏, 而勿令貿易. 今當付標, 然內出之意, 【元子冊封都監該用黃金, 有所不足, 故工曹啓請.】 別捧承傳何如?” 傳曰: “如啓.””

36) 『萬機要覽』財用編4, 金·銀·銅·鉛, “...謂之十成. 無鉛純銀. 雖屢鍊更無劣縮. 或稱十品銀...”

37) 『萬機要覽』財用編4, 金·銀·銅·鉛, “金之最上. 謂之十品金. 又謂之葉子金. 吹鍊作片如葉. 故曰葉子金. 吹鍊而未精. 謂之塊金. 未鍊. 謂之碎生金.”

순도에 따른 품등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⁸⁾ 순도의 기준은 납(鉛)과 은(銀)이 섞이는 비율이었는데, 납(鉛)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을 10, 은과 납의 비율이 10:1이면 9품, 10:2면 8품식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금, 은의 품등구분은 현전하는 의례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90년(십품은), 1694년(십품금)부터 입사장식재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입사공예품의 재료 기록에서도 이러한 품등제 적용이 17세기 이전에 이미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의 정은자(正銀子), 정은(正銀), 천은(天銀) 역시 전반적으로 색, 품등과 동일하게 순도로 구분한 것으로 순도가 높은 은을 의미한다. 먼저 정은(正銀), 정은자(正銀子)은 세금으로 공납하는 정은(丁銀), 동래를 통해 왜에서 들어온 왜은(倭銀)의 다른 명칭인 정은(錠銀)과 구분된 용어로 국내의 단천 등에서 채굴해 취련을 통해 순도를 최상으로 올린 은을 뜻한다. 천은(天銀) 역시 정은, 광은(鑛銀)이라고도 불렀고 십품은의 별칭이었다. 또 제련할 때 수건에다 녹여 부어 알갱이를 작게 만든다 하여 수건은(手巾銀)이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³⁹⁾ 영, 정조시대 실록 및 『승정원일기』, 18-19세기 문헌인 『담헌서(澹軒書)』, 『만기요람』, 『홍재전서(弘齋全書)』 등에는 이 시기 정은[正銀/丁銀/錠銀(倭銀; 萊銀)] 및 천은(天銀 또는 鑛銀)의 구분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입사공예품을 포함한 왕실공예품에서 사용한 은들은 모두

38) 1502년부터 십품금, 십품은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하지만 주석 93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06년(연산군12년) 기록을 사례로 들고자 한다. 『燕山君日記』 卷61, 연산군12년(1506) 1월 6일, “傳曰: “十品金二(貢)百兩, 花銀一千兩價, 以司(瞻·贍) 寺綿布二萬三千匹題給.””

39) 『萬機要覽』 財用編4, 金·銀·銅·鉛, “... 或稱十品銀. 或稱天銀. 或稱手巾銀. 手巾銀即吹鍊時鎔注於手巾. ...”

40) 『湛軒書』 內集 卷2, 桂坊日記, 乙未年(1775)에는 이미 18세기에 이르면 正銀, 丁銀, 錠銀(倭銀, 禁銀)의 구분 및 天銀(鑛銀)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又曰 今云鑛銀禁銀何謂 臣曰 光銀者天銀也 我國銀店所鍊也 禁銀者倭銀之來自東萊者所謂錠銀也. ...”

호조에서 관리했는데 『만기요람』에는 호조에서 관리하는 은의 품등을 천은(十品銀), 지은(地銀, 九成銀; 九品銀), 현은(玄銀, 八成銀; 八品銀), 황은(黃銀)으로 구분했다고 전하며, 천은(天銀)을 어용기명(御用器皿)에 사용했다고 해 어용 의례품이었던 [표 10]의 철제입사자물쇠의 입사 장식재 은의 명칭, 최상급의 순도, 용례가 일치한다.⁴¹⁾

아울러 영조대에 입사시문을 위해 사용하는 은인 입사은(入絲銀), 입사천은(入絲天銀)과 일반 천은(天銀)을 구분해 기록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도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조 이후 도감의 입사자물쇠 제작 기록이 확인되는 1906년 순종과 순정효황후 황태자 가례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1754년(영조30) 편찬된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사례를 들면 옥책(玉冊) 외궤에도 입사장(入絲匠)이 투입되어 일부 입사시문을 담당했으나, 1방에서 사용된 은 자체는 소비된 천은(天銀) 총량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반면 2방에서 제작된 호갑에 사용된 철제은입사쇄약(金印護匣正鐵打造銀入絲鎖鑰) 8구는 입사천은(入絲天銀)으로 기록되어 있어 같은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천은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입사를 위해 미리 실 형태로 싹뿍이를 한 천은을 이와 같이 용도에 맞춰 구분해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⁴³⁾ 이후 정조대에는 금과 은은 물론 철까지 주성정철(鑄成正鐵) 또는 타조정철(打造正鐵)로 구분해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의궤 기록은 숙종 시기부터 입사장의 소속 관청을 기록하거나, 재료가 세분화되어 기록하는

41) 『萬機要覽』財用編4, 金·銀·銅·鉛, “...戶曹銀有四名. 曰天銀, 地銀, 玄銀, 黃銀. 天銀用於御用器皿. 地銀用於支勅禮單. 玄銀, 黃銀用於諸般經用. 一年所捧不能當所下. 故天銀, 地銀, 以價磨鍊. 逢授白木塵. 使之貿銀吹鍊. 臨時取用.”

42)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54) 1방 의궤.

43) 이는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175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1759), 『정조효의왕후가례도감의궤』(1762) 등 이후 17세기 중반~20세기 초반 편찬된 의궤에서도 지속된다. 또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1757)에서는 입사두석장식(入絲豆錫粧飾)물의 재료에도 입사두석(入絲豆錫)으로 동합금계까지 입사용으로 구분하는 양상이 보인다.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미 재료는 이전부터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궤의 재료 기록 경향이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2) 동, 철

[표 10]에서 확인되는 동은 숙동철(熟銅鐵)과 땀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액체형으로 가공한 한음동철(汗音銅鐵), 철은 정철(正鐵)이다. 동과 철은 자물쇠 본체 제작과 틈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입사장에게 지급된 동과 철은 원료 자체가 지급되거나 쇠약장 등 다른 장인이 자물쇠를 제작했다면 입사장에게는 만들어진 쇠약과 장식재료인 금, 은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땀이 필요할 경우 한음동철과 같은 땀금속이 지급되었으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정철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⁴⁴⁾ 도구용 정철은 쪼음입사를 할 때 기물면에 평정질을 하는 쪼음정(의궤 기록에는 造乙釘, 鳥乙釘, 召伊釘, 召乙釘, 造伊釘, 鳥伊釘: 현재의 판정, 평정, 쪼음정 등 표면 새김에 사용하는 조이정)이나 굵갱이(갈이칼, 가질칼), 망치(尅, 尅赤)의 머릿쇠와 같은 도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도구는 지금도 장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의궤에 입사장에게 지급된 정철의 양에는 동일한 수량의 자물쇠를 제작했다 하더라도 차이가 존재한다.⁴⁵⁾ 일본 등에서 수입된 금속을 사용할 때는 왜동철(倭銅鐵) 식으로 표기해 국내산 동, 철과 구분 기록했다.⁴⁶⁾

44) 현전하는 의궤에서 한음동철의 지급은 『莊烈王后明聖王后尊崇都監儀軌』(1677)에서, 도구용 철 지급은 『英祖王世弟受冊冊禮都監儀軌』(1721) 서목정(鼠目釘)을 제작하기 위한 정철 지급 기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45) 김세린, 앞의 논문, 2019, 88~89쪽.

46) 현전하는 의궤 중 숙종16년(1690) 인현왕후 복위책례도감에서 의례용 입사공예품의 일본산 동 사용이 처음 확인된다(등자). 『肅宗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1690), 3房 鐙子二雙每雙所入.

현전하는 의뢰에서 도감의 입사장에게 입사공예품 제작을 위해 지급된 동은 동철(銅鐵[鐵]), 연황동(鍊黃銅), 동(銅), 연동철(熟銅鐵[鐵]), 분임동철(分監銅鐵), 황동(黃銅), 왜동철(倭銅鐵[鐵]), 동사(銅絲), 한음동철(汗音銅鐵) 총 9가지 명칭이 확인된다. 철은 4가지로 강철(強鐵[鐵]), 정철(正鐵[鐵]), 타조정철(打造正鐵), 등자금(鎧子金)이 나타난다. 이 중 숙종~영조 연간 상존 호도감에서 동은 연동철과 한음동철, 철은 정철이 확인된다.

동과 철 명칭으로 도감에서 사용된 동과 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우선 원료 자체를 뜻하는 동철(銅鐵), 동(銅)과 무쇠를 불려 순도를 높인 국내산 저탄소강(탄소함유 0.3-1.7%)인 정철(正鐵), 정철 중 열처리와 담금질을 통해 강도를 올린 강철(強鐵), 불순물을 빼는 정련과정을 거친 동임을 나타내는 연황동(鍊黃銅), 연동(熟銅), 금속 불림 과정을 한자로 음차한 분임동철(分監銅鐵) 등과 같이 정련 및 가공을 거친 금속이라는 뜻을 내포한 명칭이 확인된다. 또 금속이 직접 사용되는 용도와 기법에 따라 명칭을 붙인 타조정철(打造正鐵: 단조로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철), 등자금(鎧子金, 鎧子釧: 마구 제작에 사용하는 철)⁴⁷⁾도 있다. 아울러 실(絲)과 같이 동과 철을 가공한 형태와 일본산을 나타내는 원산지로 표기된 명칭도 있다. 명칭에서 확인되는 유형은 당시 동, 철의 구분은 물론 입사공예품 기물제작에 사용된 동, 철의 성질, 성분, 성분함량비율, 원산지, 가공형태에 따른 용도 등 바탕재가 지닌 여러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 자물쇠 성분분석에서는 철제입사자물쇠 대부분이 바탕재인 철(Fe)이 6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장식재인 금, 은이 성분을 구성한다. 주석, 아연, 납이

47) 입사공예품에 사용된 철 중에는 일반 鐵, 銅鐵 이외에도 등자에 사용된 쇠를 구분해 표현하는 鎧子金(鎧子釧)가 확인된다. 釧는 鋼, 鑛과 마찬가지로 강철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등자에 주로 사용되는 철의 종류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강철을 따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철제입사공예품에는 강철로 제작되는 등자, 안장, 검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등자금이 이들의 제작에 사용된 철의 범주 안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섞인 경우도 있지만 0.3-0.5% 내여서 극소량이다.⁴⁸⁾ 이를 통해 [표 10]과 같이 의례에서 나타나는 철제입사자물쇠에 사용된 순도 높은 정철(正鐵)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양부일구 등 왕실에서 제작된 일반 공예품 및 강철을 사용했던 무구류도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여겨진다.

IV. 맺음말

숙종~영조 연간에는 왕권의 안정과 정통성을 세우고 생존한 대비를 받들기 위해 다른 시기보다 많은 수의 상존호례를 열었다. 의례를 치루기 위해 예제에 근거해 해당 의물들을 갖춰야 했고, 철제입사자물쇠는 보록과 호갑의 구성 의물 중 하나로 제작되었다.

의례에 들어가는 자물쇠는 다른 기물에 비해 소형이었고, 규모가 작은 제작 공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규범에 맞춰 정교하게 제작하기 위해 자물쇠를 제작하는 전문 장인인 쇠약장, 시장 등을 투입해 형태를 제작했고, 입사장이 문양시문을 담당하게 해 철저하게 제작을 분업화했다. 한편으로는 1770년 이후 보록과 주록, 호갑에 들어가는 자물쇠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보시장이 등장해 도감 내 쇠약장과 시장의 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왕실 의례에 사용하는 자물쇠였기에 재료도 국내산 매우 양질의 순도 높은 금속재료를 활용해 제작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현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고, 현전하는 유물 중에는 추후 보수해 넣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당 의례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자물쇠가 많았다. 이는 연구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선시대 금속공예의 양상과 기술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왕실용 자물쇠에 대한 보다 면밀한 유물 조사와 문헌기록 수집 및 분석이 절실히

48) 국립고궁박물관, 『御寶2: 보통, 보록』, 2010, 772~773쪽.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본 논문은 숙종~영조 연간 상존호도감에서 제작한 철제입사자물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전하는 동, 철제 자물쇠 및 금속공예품을 의궤 기록과 유물을 분석해 기술과 장인, 제작품이 담고 있는 역할과 사회문화사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아울러 각 공예품이 지니고 있는 공예기술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기술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복원, 연결하는 연구는 앞으로 정진해 나가며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갖춰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國朝喪禮補編』

『湛軒書』

『萬機要覽』

『明宗實錄』

『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1753, 奎14926)

『淑嬪上諡都監儀軌』(1772, 奎13491)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13, 奎13267)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1754, 奎13294)

『英祖實錄』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22, 奎13277)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1726, 奎13280)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39, 奎13283)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40, 奎13286)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47, 奎13288)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51, 奎13290)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2, 奎13292)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1756, 奎13269)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1698, 奎13503)

『中宗實錄』

『眞宗追崇都監儀軌』(1777, 奎13327)

『春官通考』

『太祖神懿王后太宗元敬王后諡號都監儀軌』(1683, 奎14927)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儀軌』(1773, 奎13265)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1740, 奎13264)

2. 단행본 및 논문

- 국립고궁박물관, 『御寶2: 보통, 보록』, 2010.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각장』, 피아,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입사장』, 민속원, 2008.
- 김미라, 「조선후기 옥책 내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삼대자, 「조선 어보의 보록제작과 특징」, 『왕의 상징 어보』, 2012, 195~205쪽.
-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중수, 「존호, 존송, 상호도감의례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집』 12, 2005, 162~187쪽.
- 박민정, 「고려시대 자물쇠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오승식, 「전통자물쇠 제작기법 연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혜원, 「조선말기 왕실 의례용 목가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장경희,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장경희, 「조선후기 흥례도감의 장인 연구」, 『미술사논단』 8, 1999, 181~212쪽.
- 장경희, 『의례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릉 의물』, 민속원, 2013.
- 최응천, 『한눈에 보는 입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6.
- 하수민, 「조선왕실 보록의 제작과 율삭형 연구」, 『무형유산』 7, 2019, 195~220쪽.

3. 인터넷 웹사이트

-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g.go.kr/service/index.nihc>
-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누리집: <https://www.museum.go.kr/uigwe/>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Abstract

A STUDY ON THE DECORATION TECHNOLOGY AND METAL
MATERIALS OF IRON LOCKS DECORATED WITH INLAYS
PRODUCED BY THE TEMPORARY GOVERNMENT OFFICE,
WHICH GIVES THE TITLE OF RESPECT FOR THE
REVERENCE OF KING SUKJONG TO YEONGJO
PERIOD(1674-1776)

KIM SERINE (KIM, SE RINE)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iron inlaid locks made by the temporary government office of King Sukjong-Youngjo. During the year of King Sukjong and Yeongjo, national events were more active than other periods. When giving a formal name, I had to observe various manners, and I made a gold seal or a jade seal. An inlaid lock made of iron was used as a lock for the box that kept this seal.

The iron inlaid lock that locks the box was smaller than other pieces made in the same place. However, many craftsmen were put in to make this elaborately polite.

The locksmith made the shape of the lock, and the inlay craftsman was in charge of the decoration. And in 1770, a craftsman who specializes only in the keys to lock boxes appeared. This means that the division of labor has been made more thorough. The material used to make the lock is a metal material with high domestic purity.

However, there were not many artifacts open to the public, and many of them did not match the record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repairs. This was one of the research challenges. However, on the one hand, in order to clarify the whole aspect of metalworking and technology in the Joseon Dynasty, a more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artifacts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literature records left the task of being urgent

Key Words : Temporary government office(권설도감), honorable title(시호, 존호), The iron lock with inlaid decoration(철제입사자물쇠), Inlay technique(입사기법), Inlay craftsman(입사장)